

대별상(마누라) 본풀이

마누라본은. 요즘은 접종허고, 뉘허고 해부난 잘 엇주만은. 옛날은 홍역. 말하자면 홍역허영. 거, 얼굴에 뽀골 뽀골허게시리. 겐 얼굴에 막 물집이 생견 현 때에. 그 마누라 송¹⁾을 보민, 그걸 막 애기가 막 굶영, 굶어불민 얼굴이 덧냥. 우리 말하자면 곱보, 것이 되는 거주게. 덧이 난. 송 안본디는 경 허여도 곱닥허게²⁾, 오물렉기³⁾ 허는 거고. 겐디. 그 마누라본은 얼굴 츠지는, 게난 얼굴 츠지엔 현건. 얼굴을 곱닥허게 해 주느냐, 어떻 허느냐 그 홍역에 대해서 허는 말인데.

얼굴 츠지는 홍진국대별상, 경 허연 허는다.

홍진국 대별상이 옥황에서 준지(眞珠)지기, 책갑(冊匣)지기, 영끼(令旗)지기, 몸끼지기, 경 헨 거느령 인간땅에 이제 즈순덜신디⁴⁾ 호명⁵⁾을 허레 내려사는 거라. 겐 호명(呼名)허레 내려삼젠 허난. 인간 명진국할마님이 브름썩⁶⁾에 구름썩⁷⁾에 들으난. 아이, 홍진국대별상이 이제 책갑(冊匣)지기덜 거느리명 인간에, 게난 할마님 즈순이주게. 인간 즈순들은, 명진국할마님 즈순인디. 이제 할마님 즈순신디 호명을 허레 왓덴 허난. 할마님이 막 불 안헌 거라. 경 허연. 2만히 들으난 브름썩에 구름썩에 홍진국이 알더레 내려사는 걸 들언. 명진국할마님이 홍진국안테 엇데를 허연⁸⁾

“아이고, 홍진국대별상님아, 우리 즈손들안티랑 준지(眞珠)⁹⁾를 주어도 보기 좋게시리 쥬, 경 준지(眞珠)를 하영 주지 말아 줍센.”

경 허연. 이젠 엇더정 스정(事情)을 헤가난. 홍진국대별상 허는 말이,

“저 할망은 어떻 현 할망이고?”

“난 인간 명진국할망이우다.”

허난에.

“막상 해봐야 인간에서 애기 내우레 텅기명 무시거 핏네 나는 디나 텅기는, 여정네가 흙부로 남자의 행차길에 이제 험덴.”

1) 송: 흥.

2) 곱닥허게: 곱다랗게.

3) 오물렉기:

4) 즈순덜신디: 자손들에게.

5) 호명: माम을 일컫는 말. ‘호명정구’라고도 함.

6) 브름썩에: 바람에 떠도는 소문에.

7) 구름썩에: 구름에 떠도는 소문에.

8) 엇데를 허연: 엇드려 절하면서.

9) 준지(眞珠): 진주. 여기서는 그 모양이 माम자국과 같다고 해서 쓰인 표현임.

할망신디 막 욱을 헌거라. 게난 할마님이 슬그문찍이¹⁰⁾ 부에¹¹⁾가 난.

‘응, 나한티 험주만은 두고보자.’

젠 혜신디. 아닌게 아니라. 흥진국대별상은 덩기명 즈순들신디 막 준지를 준 거 아니. 경 허연 막 준지를 권. 흥명을 허고 막 허는다. 할마님은 흥번 나 즈순을 좇아보주젠 험 간보난. 아닌게 아니라. 얼굴에 엮어진 딘¹²⁾, 엮어지고. 틀어진 딘, 틀어지고. 막 대닥대닥 준지를 준 거라. 젠 주난. 부에가 풋죽 ㄴ찌 난 거라 할마님이.

경 허는다. 흥진국대별상 아들이 장계를 간. 게난 메느리가 가메 탄 가가난, 할마님이 가메벧줄에 딸랑 간 거라. 딸랑 간, 이젠 그 흥진국대별상 메느리안티 치메깍¹³⁾에 딸르고¹⁴⁾ 험 간에 포테(胞胎)를 시겏주게. 포테(胞胎)를 시겏 허난. 흥 덜, 두 덜 넘언 석 덜 열흘 넘언, 아호열 덜 준삭(準朔)차도 애긴 안 나는 거 아니. 열흥 덜이 돼가난. 경 혜도 아니 난, 열두 덜이 돼가난 애기 어명도 죽을 스경(死境)이 돼가고, 이젠 베 쏘곶에 잇는 애기도 죽을 스경(死境)이 돼가고. 게난, 흥진국이 그냥 메누리 죽는 꼴광, 손지 저추룩¹⁵⁾ 못뵈 허는 꼴을 어명 보렌 그냥 탁 탄복을 허연. 이젠 말 하자면 아판 눈거주. 경 허난. 흥진국대별상 부인이 이제, 흥진국대별상이 서신국마누라 허고 막 친헌 곶 아니까, 게난 흥진국대별상 부인이 서신국을 좇앙 간거주게. 좇앙 간.

“아이, 야카야카허연. 이제 영영 헌 일이 잇인디 어명 험네까?”

허연.

“아이고, 경 허건. 이제 흥포관디(紅袍冠帶) 입고 허영, ㄴ람지¹⁶⁾ 폐와 놓고 허영, 백보 베깃딜로¹⁷⁾ 할마님안티 강, 곶어 신청을 허영 스정을 허여사 헌덴.”

게난. 이제 대별상, 흥진국 대별상 부인이 오란에

“아이고, 서신국 마누라님신디 좇앙 간 곶으난¹⁸⁾ 저 이만저만 허렌 험디다.”

허난에, 험 수 잇이 그 며느리 죽는 꼴을 안 보젠허난, 출련, 도폭 입고

10) 슬그문찍이: 슬며시.

11) 부에: 화.

12) 엮어진 딘: 얼굴에 마마 자국이 생긴 곳.

13) 치메깍: 치맛자락.

14) 딸르고: 따르고.

15) 저추룩: 저렇게.

16) ㄴ람지: 이영.

17) 베깃딜로: 바깥으로.

18) 좇앙 간 곶으난: 찾아가서 말하니.

허연 출런, 느람지 폐완 백보 베깃덜로. 게난 애기덜이 홍역허영 막 승
방. 옛날은 승 방은에. 옛날은 애기들이 열세 개 난 반벙작¹⁹⁾ 허그라, 열
개 난 세 개 살았저. 홍역허명 애기들이 다 죽는 거라. 승 받. 게난 그추
룩 혈 때는 진짜로, 느람지 폐와 놓고. 나도, 경 허연. 나 멧 밧디, 나 간
빌어난 경 현 일이 잇인다. 게난 느람지 폐와 놓고 허연. 옳더전 올레로부
떠 그 상 출런디 깃지²⁰⁾ 빌명 혼 발 혼 발 영 급영, 경 허영 그 깃지 빌
명 오는 건디. 게난 홍진국대별상이 간 느람지 폐완 이제 옳데헤연²¹⁾ 앓
으난. 할마님이 영 금법당 안네서 영 문을 올안 보난, 홍진국대별상이 바
로 그디완 직냥도포²²⁾ 입고, 관디 입고 허연 옳데 헨 잇이난. 모진 광풍이
불게 할마님이 축지법(縮地法)을 읽은 거라. 막 브름이 불어도 옷이 다 찢
어지고 경 헤도 꿈짜도 안허연. 그디 꿇여 앓안 업데헤연 잇이난. 할마님
이 여자에 마음으로서

“저디, 저 시군문²³⁾ 베깃디, 백 보 베깃디 잇는 건 누구냐?”

허난. 대별상 허는 말이

“저 홍진국대별상입네다.”

“어떻 허연 남정네가 여정네를 좇앙 왔이넨.”

허난

“아이고, 할마님아, 우리 며느리가 포테(胞胎)가 되언. 열 들이 웨어도
헤산을 못허난, 며느리도 죽을 스경(死境)이 웨고, 배 쏘곶에 잇는 손주도
못 볼 지경이 웨난, 할마님아, 과연 내가 잘못허엿수덴. 할마님을 몰라
받. 내가 잘못헛수덴.”

허난

“응, 너도 너 자손 보고 싶으냐, 나도 내 자손 고운 얼굴 보고싶으덴.
경 허든, 내 자손안티 강. 옛날 얼굴을 다 못 멘들아도, 내 자손 고운 얼
굴을 멘들아도렌.”

허난

“아이고, 할마님아, 과연 잘못허엿수다. 내가 강 메꿀만이²⁴⁾ 메짜보고
허쿠덴.”

19) 반벙작: 주로 주인과 소작인이 서로 수확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계약해서, 경작하거나 관리하다는 뜻인데. 여기서는 반만 살아남았다는 뜻임.

20) 출런디 깃지: 차린데 까지.

21) 옳데헤연: 무릎 꿇고 절하면서

22) 직냥도포: 도포(道袍)의 한 종류.

23) 시군문: 곳을 시작한다는 의미로, 문을 열어 곳을 하다라는 용어를 차용, 대문이라고 볼 수 있음 .

24) 메꿀 만이: 메꿀 만큼.

허연. 이젠 경 허연. 흥진국 대별상이 이젠 또 내려산, 그 할마님 즈순 안티 간. 얼굴에 간 메꾼디 메꾼덴 허난. 경 허난, 그 지금은 수두. 게난, 흥역 잇고, 마누라²⁵⁾가 잇주게. 게난 이제 말제 헌건. 마누라 헤 나쁜, 또 흥역허연. 그뎨 이젠 얼굴에 난 것들 또 메짜주고 헌덴 허연. 게난 할마님이 간 보난. 옛날 본 얼굴은 엇언. 경 헤도 그냥 칠세오리²⁶⁾ 정도 막 더닥 더닥 헤난 거를, 게도 메꿀만이 메짜시난. 그뎨 알앗덴 허연.

“당신도, 당신 즈순 보고 싶으난 내가 알앗덴.”

허연. 그뎨 할마님이 들어산에, 대별상 메누리²⁷⁾ 애깃배 맞추게 허연. 경 허연 애기 나오라가난 은그웨로 콧주둥이 쏘악²⁸⁾ 건드난, 옥동자가 찰락허게 씨더지난²⁹⁾. 그뎨엔 대별상 허는 말이

“아이고, 나 기술만 좋덴 허단 보난 나 기술보다 더 좋은 할마님도 잇구나.”

경 허연. 그뎨에 애기를, 손지를 본 범으로서, 흥진국대별상은 흥역 혈 때에 이건 비는 거. 흥진국대별상이엔 허영 흥역 혈 때 비는 본풀이입니다.

25) 마누라: 마마.

26) 칠세오리:

27) 메누리: 며느리.

28) 쏘악: 끝이 날카로운 것이 연한 무 같은 것을 찌를 때 쉽게 들어가는 꼴.

29) 씨더지난: 쏟아지니.